

眉巖 柳希春 시문에 나타난 鍾城 유배기 활동 양상

박명희*

〈차례〉

1. 머리말
2. 유희춘과 鍾城 유배
3. 시문에 나타난 활동 양상
 - 3.1 학문 연마와 尊朱意識의 표출
 - 3.2 현지인에 대한 교육과 저술
 - 3.3 문인 人士와의 교유와 소통
4. 시문의 성과와 남은 문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고는 유희춘이 함경도 종성 유배 시절에 지은 시문에 나타난 활동 양상을 구명하고, 그 시문의 성과를 정리하였으며, 남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유희춘이 남긴 종성 유배기 시문은 총 143수이다. 이러한 시문을 활동적인 측면에 근거해보면 첫째, 학문을 연마하며 尊朱意識을 표출한 내용, 둘째, 현지인들에 대한 교육과 저술, 셋째, 문 인사와의 교유와 이를 통한 소통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학문을 연마하며 존주의식을 표출한 내용에서는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은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유희춘은 학문과 관련된 시문을 통해 남송 때의 학자인 朱熹를 존송하는 태도를 강하게 내비치었다.

둘째, 현지인들에 대한 교육과 저술 활동을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희춘이 종성 유배 시절 현지인들은 배움의 의지를 보여 모여들었고, 유희춘

* 전남대학교

은 유교적 현창 사업과 저술 활동을 통하여 현지인들을 교화시키려 했음을 몇몇 시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셋째, 뭇 인사와의 교류와 이를 통한 소통을 끊임없이 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작품 특히, 金麟厚와 주고받은 酬答詩가 인상적인데, 총 16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희춘과 김인후는 당시 士林이라는 위치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러한 공통된 실천성은 결국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구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했으며, 짧은 시문으로나마 지닌 소회를 나타냈다고 보았다.

유희춘의 종성 유배기 시문은 각각이 한 편의 작품에 불과하여 떼어서 보면,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전체를 관망해 본다면 유배기를 정리해주는 이야기(story)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유희춘이 유배지에서 남긴 중국 역사 시문과 현실 인식을 담은 시문에 대한 관심은 남은 과제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 眉巖 柳希春, 함경도 鍾城, 유배, 尊朱意識, 金麟厚, 『眉巖集』

1. 머리말

본 논고는 眉巖 柳希春(1513~1577)이 함경도 鍾城 유배 시절에 지은 시문에 나타난 활동 양상을 구명하고, 그 시문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유희춘은 16세기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던 시기를 살다간 문인정치가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선조 때 10여년의 개인 일상사 및 經筵의 모습을 『眉巖日記』를 통해 남겼다. 『미암일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록 개인의 일상사를 주로 담고 있지만, 유희춘이 유배에서 풀려 복직된 후 궁에 드나들면서 기록한 자료이기에 단순한 개인적 자료로만 인식하지

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하에 『미암일기』에 대한 연구는 문학, 역사, 민속 등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미암일기』에만 연구가 주로 집중되다 보니, 심지어 유희춘에 대한 연구는 마치 『미암일기』에만 국한된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유희춘도 다른 문인들처럼 엄연히 시문을 남겼고, 양으로 따지면 282수정도 된다. 또한 이러한 시문들은 유배 중의 시문과 해배 후의 시문으로 구분된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희춘의 시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물들을 보면, 이렇듯 구분된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관심을 보였더라도 온전한 안목에서 나온 성과물이 아니었다.²⁾ 즉, 유희춘의 시문은 종성 유배기와 解配期에 지

1) 유희춘의 시문은 『眉巖集』 권1과 2에 실려 있다. 이의 실태를 보면, 권1에는 120題 126首가 있으며, 권2에는 123제 156수로 총 243제 282수가 정리되어 있다. 형태적으로는 권1과 2의 것이 섞여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4언은 2제 3수, 오언고시는 16제 19수, 칠언고시는 11제 11수, 오언절구는 32제 47수, 칠언절구는 111제 128수, 오언율시는 20제 23수, 칠언율시는 50제 50수, 배율은 1제 1수 등이다. 한편, 尹致羲가 쓴 『미암집』 서문에 따르면, 남아있는 유희춘의 시문이 281수라 하였는데, 본 논고와 1수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송재용은 『미암일기 연구』(제이앤씨, 2008, 68쪽)에서 『미암집』 외에 『미암일기』, 『眉巖詩稿』, 『德峯文集并眉巖集』 등 유희춘과 관련된 저서를 종합해 보면, 320수정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편수에 대한 사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는 한국고전번역원 간행 『미암집』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우선은 총 282수로 확정지었음을 밝힌다. 한편, 종성 유배 중에 지은 시문은 총 143수정도 된다. 권1의 120제 126수를 비롯하여 권2의 3제 17수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특히, 권2의 3제 17수의 면면을 보면, 〈和金河西麟厚韻〉 14수와 〈又寄河西〉 2수, 〈輓羅松齋世續〉 1수 등이 그것이다. 17수 작품의 내용을 근거해 보면, 종성 유배기에 지은 시문들이지만, 권1에서 누락된 이유는 당초 종성 유배기 시문을 엮을 때 實在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실 『미암집』 권1의 서두를 보면, ‘鐘城原刊’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권1의 경우 종성 유배기의 시문만을 모은 것이라는 표시이기도 하다. 한국고전번역원 『미암집』 해제에 따르면, 1612년 함경도관찰사를 역임한 韓浚謙이 유희춘이 종성 유배기에 지은 시문만을 모아 스스로 교정하여 종성에서 간행했다고 하였는데, 『미암집』 권1은 한준겸이 간행한 詩稿를 저본 삼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한준겸이 종성 시문을 간행할 때는 17수가 보이지 않아 포함시키지 못했다가 훗날 김인후와 나세찬의 문집에서 찾아내어 『미암집』을 엮던 중에 권2로 배정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저간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유희춘이 종성 유배기에 지은 시문은 총 143수로 보는 것이다.

2) 그동안 발표된 유희춘의 시문 연구 성과물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송재용, 「미암 유희춘의 시세계 -한시와 시조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30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 김종성, 「미암 유희춘의 한시 연구」(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은 시문으로 나뉘며, 장소와 처한 상황이 다른지라 내용 전개도 구분된다.

유희춘의 일대기를 정리한 연보는 없다. 그 대신 『미암집』권21에 부록으로서 李好閔이 쓴 〈諡狀〉이 남아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면, 생애는 4기로 나뉜다. 1기는 ‘출생과 학문수학기’로 출생해서 벼슬에 나아가기 전인 1세~24세까지이고, 2기는 ‘1차 仕宦期’로 25세~33세까지이다. 그리고 3기는 ‘유배와 해배기’로 35세~54세까지이고, 마지막 4기는 ‘2차 사환기’로 55세~65세까지이다. 이러한 생애 가운데 본 논고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 부분은 제3기이다. 1기는 벼슬에 나아가기 전으로 간헐적 기록만 있을 뿐이지만, 2기는 벼슬에 나아간 후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자료를 통해 유희춘이 어떤 足跡을 남겼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기는 『미암일기』를 쓴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유희춘의 행적을 소상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종성 유배기인 3기에 대한 기록은 시문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시문은 운문이기 때문에 서정성과 감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깊은 내면을 알 수 있다는 特長이 있다. 이런 이유로 유희춘에게 있어 종성 유배기 시문은 소중할 것이며, 시문에 나타난 여러 활동 양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시문의 전개 양상을 본격적으로 구명하기에 앞서 종성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유희춘 개인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유희춘과 鍾城 유배

유희춘은 1513년(중종8) 海南縣에서 부친 桂隣과 모친 耽津崔氏의 두

석사학위논문, 2003) ; 황수정, 「미암 유희춘 문학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06 ;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유배기 문학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32집, 동양고전학회, 2008. 이 가운데에서 송재용, 김종성, 황수정 등은 유희춘의 유배 문학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연순은 유배기 문학 연구를 시도했지만, 중요 사실을 대부분 놓친 듯한 느낌이 든다.

번째 아들로 태어난다. 자는 仁仲이요, 호는 眉巖·漣溪 등이 있으며, 본관은 善山이다.

유희춘은 7,8세에 부친으로부터 『通鑑』을 배웠으며, 이후 학문에 매진하여 25세에 생원시에, 이듬해 26세에는 別試에 丙科로 합격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權知成均館學諭가 되고, 다음 해 27세에는 實錄廳兼春秋館記事官에 선임되었으며, 29세에는 禮文館 檢閱이 되어 점차 경륜을 펼치기 시작한다. 30세에는 世子侍講院說書가 되어 왕이 되기 이전의 인종에게 『大學衍義』를 가르쳤으며, 그해 8월 司書로 승진하지만, 9월에 휴가를 내어 省親하고 사직한다. 이듬해 2월에는 鴻문관 수찬이 되어 사서까지 겸하는데, 고향에 계신 모친을 잊지 못해 사직을 청한다. 그러나 중종은 사직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향과 조금 가까운 茂長의 현감을 제수한다. 다음해에는 중종이 승하하고, 33세 되던 해에 인종이 즉위하는데, 유희춘은 이때 대사헌 宋麟壽의 추천을 받아 鴻문관 수찬이 되었으며, 8월에 사간원 정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무렵에 大尹과 小尹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전자는 인종의 외삼촌인 尹任을 지칭하고, 후자는 명종의 외삼촌인 尹元老와 尹元衡을 가리킨다. 소윤들은 자신들을 따라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간사한 무리들을 주로 끌어들이어 세력을 규합, 대운 일파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密旨를 文定王后에게 내려달라고 청한다. 그러면서 대사헌 閔齊仁과 대사간 金光準이 中學齋에 유희춘을 비롯 宋希奎·白仁傑·金鸞祥 등 당대 주요 관직에 있던 이들을 모이게 하여 소윤 편에 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일을 그르칠 것을 염려하여 이번에는 鄭順朋·李芑·林百齡·許磁 등을 동원하여 고변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대운 세력의 핵심인 윤임·柳仁淑·柳灌 등이 유배나 파직 등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여러 요직의 사림들도 파직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항의를 하자 문정왕후가 크게 노하여 백인걸은 옥에 가두고 송희규와 유희춘에게는 파직을 명하였다. 을사사화의 여파가 유희춘에게 미친 것이다.

그리고 35세 9월에 良才驛壁書事件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소윤 세력

이 자신들의 政敵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잔존 인물을 도태시키려는 의도에서 일으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사되거나 유배를 갔다. 유희춘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絶島 제주로 유배를 가기에 이른다. 그러나 제주 는 고향인 해남과 가깝다는 이유로 취소되고, 이번에는 絶邊 함경도 종성에 이배된다. 유희춘이 종성에 도착한 때는 그의 나이 36세 2월이었다. 2월이어서 추운 겨울은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북변인지라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곤경에 처한지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칫 중심을 잃을 수가 많았다. 하지만 유희춘은 그러한 모습 대신에 학문에 열중하고 현지인을 교육시키는가 하면, 저술에 몰두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몇몇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① 3년 2월에 謫所에 이르렀는데 선생이 곤경에 처하여도 지조를 지키고 마음을 편히 하기를 천명과 같이 여겼다. 바야흐로 생각을 깊게 하고 글을 지을 적에 입으로는 외우고 손으로는 쓰면서 밤낮으로 계속 하였는데 가슴속 기운은 태연하였다. 六鎭은 鞞鞞과 가까워서 풍속이 활 쏘고 말 타기를 좋아하고 글자를 아는 이가 적었는데, 선생이 이르자, 선생의 이름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선생이 재질에 따라 인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세하게 하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다투어 와서 집이 항상 가득 찼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문학이 성대하였다.³⁾

② 그리하여 여러 유감이 있는 자들이 합세하여 선생을 꼭 죽을 곳으로 귀양 보내려고 하였으니, 제주도에 보냈다가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다시 종성으로 유배시켰다. 육진은 말갈과 이웃하여 弓馬를 숭상하고 문자는 없었는데 선생이 한결같이 진심으로 응대하고 가르치기를 성실하게 하니 풍속이 크게 변화하였다.⁴⁾

3) “三年戊申二月，至謫所，公處困遂志，安之若命。方且覃思著述，口誦手抄，夜以繼日，胸中之氣沖如也。六鎭邊於鞞鞞，俗尚弓馬，少識字者，公至，聞公之風，願學者衆。公因才誘掖，教詔諄悉，遠邇爭趨，戶屨恒滿，至季年。”(柳希春, 『眉巖集』附錄 권20, 〈謫狀〉, 韓國文集叢刊 34집, 533쪽) 이와 똑같은 기록은 『乙巳傳聞錄』, 〈柳希春傳〉에도 있다.

4) “於是羣憾合勢，期欲置之死地，乃編管濟州，又謂其家鄉近，移配鍾城。六鎭邊鞞鞞，尚弓馬無文字，先生一以誠信接應，教誨諄實，俗尚丕變。”(崔益鉉, 『勉菴集』 권25, 〈眉巖先生柳公神道碑銘〉, 韓國文集叢刊 326집, 27쪽)

③ 홍문관 부제학 유희춘이 죽었다. …… 그가 유배지에 있을 때 밤낮으로 깊이 사색하고 글을 썼다. 변방의 풍속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희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학문하는 인사들이 많아졌다.⁵⁾

④ 미암 유희춘은 을사사화 때 종성에서 귀양살이한 것이 19년 동안이나 되었다. 곤궁하게 살아가면서도 만 권이나 되는 서적을 讀破하고 『續蒙求』를 저술하여 선비들에게 혜택을 주니, 그에게 찾아가서 배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⁶⁾

⑤ 유희암이 종성에 귀양갔을 적에 『속몽구』를 짓고 이어서 스스로 주석까지 하고 先儒의 의론을 많이 참고하여 덧붙였다.⁷⁾

⑥ 밤에 미암 유희춘이 귀양살이할 적에 가르쳤던 儒生인 金恭守, 韓景斗, 許應世 세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미암이 귀양살이할 때의 일을 자못 말하였다.⁸⁾

①에서 ⑥까지 유희춘이 유배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를 전체적으로 적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곤경에 처했음에도 마음을 편히 하고 생각을 깊게 했는가 하면 글을 지었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변방 백성들이 글자를 아는 이가 적었는데, 배우려고 한 이들이 많아 유희춘이 가르치니 원근에서 이른 사람이 많게 되었고, 풍속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④에서는 유희춘의 독서량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며, 『속몽구』를 저술했음도 알렸다. ⑥은 金誠一이 쓴 일기 중 일부로 김성일이 그의 나이 42세(1579년) 9월에 함경도의 巡撫御史가 되어 유희춘이 유배 시절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난 내용을 적었다. 1579년은 유희춘이 세상을 뜬 2년 후로 김성일은 유배지에서의 유희춘의 삶의 흔적을 찾아 확인한 셈이다.

5) “弘文館副提學柳希春卒. ……其在謫也, 覃思著述, 夜以繼日. 塞俗少識字者, 因希春教誨, 士多學文.”(『國朝寶鑑』 권26, 宣祖條3 10年)

6) “柳眉巖希春, 乙巳之禍坐謫鍾城者十九年. 窮居喫口讀破萬卷, 著續蒙求以惠士子, 從學者甚衆.”(金時讓, 『涪溪記聞』, 古典國譯叢書 65집, 100쪽)

7) “柳眉巖謫鍾城時, 作續蒙求, 仍自分注, 先儒議論.”(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제17집, 〈蒙求四庫韻對辨證說〉, 古典國譯叢書 152집, 239쪽)

8) “夜見眉巖柳公謫居時, 受業儒生金恭守·韓景斗·許應世三人, 頗能言謫居時事.”(金誠一, 『鶴峯逸稿』 권3, 〈北征日錄〉 己卯年 12月 12日)

이상 유희춘이 종성으로 유배 온 과정을 알리기 위하여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사건의 전말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종성에 도착한 이후 유희춘의 행적을 여러 기록을 통하여 알렸다. 그 행적은 크게 보면, 학문과 교육을 통한 교화, 저술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시문에서는 그 사실이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도 여러 시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못 인사와의 교유이다. 그 교유 인사는 유배 현지와 그 외 밖으로 나누어 내외로 구분되는데, 이들 인사와의 소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고 세상의 추이를 눈여겨보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문에 나타난 활동 양상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하는데, 첫째, 학문을 연마하며 尊朱意識을 표출한 내용, 둘째, 현지인들에 대한 교화와 저술, 셋째, 못 인사와의 교유와 이를 통한 소통 등이 그것이다.

3. 시문에 나타난 활동 양상

3.1 학문 연마와 尊朱意識의 표출

앞 장의 기록 내용을 통해 보았듯이 유희춘은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공부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여러 시문에서 감지되는데, 다음의 〈困學〉 시문은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형식을 따지면 장편 고체시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 부분은 스물두 살이 되어 학문에 대한 진정한 맛을 알았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어서 朱子の 학문에 심취하여 『소학』 외편을 보았을 때의 느낌과 『대학』을 或問으로 연구했을 때의 상황 등을 말한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았다고 하면서도 記誦으로 좇아갈 수 없었다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그러나 두 번째 내용은 자신이 학문에 열중하지 않는 모습을 자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의리와 공리는 대략

변별하지만, 쌓아둔 공부가 없었고, 그러면서도 학문을 이루고자 서두르지 않아 오히려 구습에 안주하며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에서 세월만 흘러갔다고 하였다. 세 번째 내용은 두 번째 상황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형용하였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昨看考亭訓	어제는 주자의 가르침을 보고
忽覺轉戶樞	홀연히 문짝 열리는 듯이 깨달아
丁寧收放心	정녕히 놓았던 마음 거두어들였네
步步進長途	한 걸음 한 걸음 먼 길을 떠남에
始也操一霎	처음엔 삼시간에 마음 다잡다가
漸到終食踰	점점 밥 먹는 시간도 넘겼는데
但使一日間	다만 하루 사이에도
提撕三五蘇	네다섯 번 정신을 일깨웠다네
自警輒自存	자신을 경계하자 절로 간직되어
暗室生明珠	어두운 곳에서도 마음이 밝아지니
從茲窮萬理	이제부터 온갖 이치 연구하여
顯微燭九區	드러나고 은미한 이치 천하에 밝히려
驅車萬里道	수레를 몰아 만 리 길을 가려했더니
兩輪不可俱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지 못하네
卅九日終斜	삼십구 해가 마침내 기울어가니
豈無收桑榆	어찌 말년엔 거둔 바 없으리요
他年記困學	후일 곤학을 기억할 때는
渺渺鍾山隅 ⁹⁾	아득한 종산의 모퉁이라네

시문의 내용에 따르면, 유희춘은 자신을 달라지게 만든 요인은 ‘주자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았던 자신이 주자의 가르침을 만난 이후 홀연히 문짝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동안 학문에 게을렀던 마음을 잡아서 잠시의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매진했다고 하였다. 이는 곧, 주자가 자신이 나아가야 할 학문의 방향을 제

9) 〈困學〉 일부(柳希春, 『眉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34집, 149~150쪽)

시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온갖 이치를 연구하여 이치를 천하에 드러내려고 했는데,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며 체념에 가까운 심정을 나타내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두 수레바퀴가 쉽게 굴러가지 못하는 듯이 현실은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말년에는 반드시 거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작품 말미에서 ‘삼십구 해’를 운운한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유희춘이 그의 나이 39세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렵은 종성 유배 후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이다. 4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인데, 위 작품은 유배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학문을 단념하지 않고 연마하는 작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위 작품의 詩題이기도 한 ‘곤학’은 『中庸』20장에 나오는 ‘困而知之’를 줄인 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학문을 안다는 뜻인데, 작자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유희춘은 이와 같이 자신이 주희에게 매료되어 학문의 방향을 정했음을 말하였는데, 〈感興〉 4수, 〈借光吟〉, 〈九月十五夜翫月有感〉, 〈半畝塘〉, 〈謝張景順見假晦菴詩〉 등의 작품을 통하여 尊朱意識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 가운데에서 〈감흥〉 4수와 〈반무당〉은 주희의 시문인 〈齋居感興〉 20수와 〈觀書有感〉 2수를 각각 바탕으로 한 것으로 주희에 대한 敬慕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반무당〉 작품을 통해 유희춘 자신의 학문의 유래처를 밝혔다. 20구의 고체시인데, 이 중에서 뒷부분 6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我有小沼靈臺下
一脈初從武夷滯
澄治少懈便不潔
下流幽黑不堪臨
安得寸膠救大渾
紫陽活水傳至今¹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연못은
한 흐름 무이산 물길로부터 왔으니
정화를 조금 게을리 하면 불결해지고
하류는 더욱 시컴해져 임할 수 없다네
어찌 한 치의 아교로 큰 혼탁함 구제하리
주자의 활수가 지금도 전해오네

시제 〈반무당〉은 주희의 시문 〈관서유감〉 첫 번째 작품 ‘반무 방당이 원 거울이 열렸으니,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배회하는구나. 물노라, 어찌 이렇게도 맑은가. 원두에 활수가 오는 것이 있는 까닭이로다.’¹¹⁾의 반무 방당에서 온 것으로 마음이 있는 곳을 뜻한다. 위 시문의 처음 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작자 마음 속의 작은 연못의 유래처는 武夷山이라고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무이산은 주희가 한 때 武夷精舍를 짓고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강론했던 곳이다. 따라서 마음 속 연못의 유래처가 바로 무이산이라고 함은 자신의 학문 유래처가 곧, 주희에게서 온 것임을 뜻한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학문을 정화하지 않으면 불결해지고, 하류는 더더욱 시컴해진다고 하여 나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음 속 연못에 주희의 活水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하였다. 주희의 학문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변함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듯 유희춘은 강한 존주의식을 유배시 곳곳에서 드러내었는데, 특히 주희를 다음 시문에서와 같이 ‘상서로운 해’, ‘밤을 낮으로 바꾼 이’, ‘자줏빛 기운’ 등으로 표현하며, 유학에 희망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① (전략)

濂關弦月出	염관에 초승달 떠오르니
河洛望宵昌	하락엔 보름달 밝아오고
卓哉紫陽山	빼어나도다, 자양산이여
瑞日湧扶桑	상서로운 해 부상에서 솟았네
(후략)	

② 朱聖主世盟	성인 주자는 세상의 맹주가 되어
長夜變白晝	기나긴 밤을 밝은 낮으로 바꾸었네
(후략)	

10) 〈半畝塘〉 일부(柳希春, 『眉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34집, 153쪽)

11) “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謂有源頭活水來.”(朱熹, 『朱子大典』 권1, 〈觀書有感〉)

③ 考亭獨主斯世盟 고정어 홀로 이 세상 맹주가 되어
 回却長夜爲新陽 긴 밤 되돌려 새로운 빛 되게 하였네
 (후략)

④ 瑞月聳紫陽 상서로운 달 자양산에 솟으니
 萬古昏霧空 만고의 자욱한 안개 사라지고
 朱輝散六合 붉은 광채 온누리에 흩어져
 一點付燭龍 한 점 빛 촉룡에 붙었네
 (후략)

⑤ (전략)
 兩曜方光大 해와 달 이제야 크게 빛나
 天誕紫陽翁 하늘이 자양옹을 낳으니
 五星既聚奎 오성은 이미 규성에 모이고
 紫氣復騰空 자줏빛 기운 다시 하늘에 솟았네
 (후략)

시문 ①은 〈감홍〉 첫 번째 작품의 일부로 孔孟으로부터 시작한 유학의 흐름을 더듬는 중에 언급한 부분으로 주로 송 때 부흥했을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濂溪의 周敦頤로부터 시작된 북송의 유학이 程顥·程頤 형제를 지나 남송의 주희까지 이르렀는데, 특히 주희에 이르러서는 상서로운 해가 솟아난 것과 같다고 하여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문 ②와 ③은 각각 〈감홍〉 네 번째와 〈사장경순견가회암시〉 작품의 서두 부분으로 침체기에 있던 유학을 주희가 부흥시켰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④는 〈차광음〉의 처음 부분으로 앞의 ①·②·③의 내용과 비슷하다. 차광음의 ‘차광’은 원래는 ‘月借光於日’에서 유래하였는데, 빛을 빌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현인이 발하는 德性의 빛을 빌려 깨달아간다는 뜻이다. 즉, 작자는 주희가 발하는 빛을 빌려 유학의 도를 깨달아가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작품 ⑤는 〈구월십오야완월유감〉의 중간 부분으로 주희의 탄생으로 水火木金土 五行의 별이 문장을 주관하는 奎星에 모여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솟았다고 하였다. 곧, 주희의 존재를

극대화시킨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유희춘은 주희를 다양하게 찬양하였다. 이러한 존주의식에 대해 奇正鎭은 『미암집』 서문에서 ‘대개 선생의 주자 존숭은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耳目을 스승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¹²⁾라고 하였다. 유희춘이 진실로 주희를 존숭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으로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3.2 현지인에 대한 교육과 저술

앞의 2장에서 이미 확인한 대로 유희춘이 종성 유배 시절 현지인들은 배움의 의지를 보여 모여들었고, 유희춘 또한 이들을 교육으로 인도하여 文盲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유교적 顯彰 사업과 저술 활동을 통하여 현지인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몇몇의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문인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30구의 시문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雖無一盃勸爾歌
高唱聲聲出金石
歌闌朗吟古人詩
丹山孤鳳九臯鶴
昌黎春容豈不好
紫陽更有清廟樂
光風秋月共無邊
三嘆擊節神鬼愕
集句競誦較輸贏
指瑕叩頭恣諧謔

술 한 잔으로 너에게 노래 권한 적 없지만
크게 부른 노래 금석 소리 나오고
노래 마치고 옛사람의 시 낭랑히 읊조리니
단산의 외로운 봉황이요 구고의 학이로다
한유의 용용함 어찌 좋지 않으리요
주자의 청묘 음악 다시 울려 퍼지네
상쾌한 바람과 가을 달 모두 가없어
무릎 치며 세 번 탄식하니 귀신도 놀라네
글귀 모아 서로 읽으며 빼어남 비교하고
흠 지적하고 머리 치며 마음껏 해학하네

12) “蓋先生之尊朱子，師心而非師耳目者。”(柳希春, 『眉巖集』 권수, 〈序(奇正鎭)〉, 韓國文集叢刊 34집, 142쪽)

侵更歷漏興悠然	밤 깊어 누고 소리 지나도 흥은 더욱 넘쳐
羈愁萬斛消胸膈	나그네 가슴에 만 섬 시름 풀어지누나
嗟我飲啄南海濱	아, 나는 남쪽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지내다
三千里外投沙漠	삼천 리 밖 사막에 던져져
縮頸土屋已三秋	흙집에서 목 움츠린 지 어언 삼 년
望雲對月空撫髀	구름 보고 달 대하며 공연히 가슴을 치네
不有躑躅媚學子	신선같은 아름다운 문생들 없다면
誰遣琵琶音慰蓬蒿 ¹³⁾	누가 초가집 찾아주어 위로하겠나

(후략)

위 작품의 시제를 풀이하면, ‘경술년 윤 6월 15일 밤에 일을 기록하여 세 문생에게 보이다’이다. 경술년은 1550년으로 유희춘이 종성으로 유배 온 지 3년이 흐른 시점이다. 추측컨대, 유배 온 지 3년이 된 6월 보름에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조리며 유희의 분위기를 한껏 낸 것으로 보인다. 전략된 부분에서는 보름달이 뜬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인용한 부분부터 유희춘과 제자가 爛漫한 분위기를 즐기는 내용을 나타내었다. 술을 마시고, 흥이 무르익자 노래를 부르며, 시를 읊조리는 등의 모습은 어느 회합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작자는 시를 낭랑히 읊조리는 광경을 보고, 마치 ‘丹山の 외로운 봉황이 요, 九臯의 학인 듯하다’라 하였다. 단산은 丹砂를 내는 산의 구멍으로 단혈이 있는 산을 말하며, 그곳에 봉황이 깃든다고 한다. 또한 九臯는 아홉 언덕 땅위란 뜻으로 『시경』 소아 <鶴鳴> 시에 ‘학이 구고에서 우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다.’¹⁴⁾는 내용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의 위세가 당 때의 문인인 韓愈와 남송의 학자인 주희에 대비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문장을 지어 서로 읽으며, 서로의 장단점을 지적해주면서 해학을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밤은 깊어 가는데, 작자는 그러한 중에 시름이 풀어졌다고 하였다. 종성 유배 후 쌓였던 시름이 제자들과의

13) <庚戌閏六月十五夜記事示三生> 일부(柳希春, 『眉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34집, 152~153쪽)

14) “鶴鳴于九臯, 聲聞于天.”(『詩經』小雅 <鶴鳴>)

놀음으로 점차 풀려감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신선같은 문생들이 없었다면, 자신을 위로해줄 이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유배의 시름을 달래는데 제자들의 힘이 컸음을 적었다.

이렇듯 유희춘은 문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닌 지식을 전했을 것이며, 제자들 또한 이를 받아들여 점차 지식을 소양하여 교화되어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유희춘은 鄭夢周의 위패를 신설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20구로 이루어진 〈府文廟新設鄭文忠公位版〉을 지었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朝廷通諭祀文廟 欲尊賢哲興庸凡 胡爲北鄙昧白日 幽谷復自遮雲 伊我一聞激夙慕 丁寧使君感至誠 隆典一舉青衿動 燕雀賀廈相誦誦 光風霽月縱難傳 秉彝好德人人咸 君不見伊洛關閩淵源有自來 濂溪卓識超羈囿 ¹⁵⁾	조정에서 통문 띄워 문묘에 종사하니 현철을 높여 범인들 흥기시키고자 함이네 어찌 북쪽 변방 대낮에도 어두울까 깊은 계곡 다시 구름과 가랑비에 가렸네 내 들으니 예전의 흠모 격동하고 정성스런 사군은 지성에 감응하였네 실추된 법도 일으키니 유생들 감동하고 작은 새들 큰 집 축하하며 재잘거리네 광풍제월은 비록 전하기 어려우나 병이호덕은 사람들마다 갖추었네 그댄 보지 못하였나, 이락관민의 연원 유래 있음 주렴계의 탁월한 식견 굴레를 초월하였네
---	---

이 작품의 시체를 풀이하면, ‘부의 문묘에 鄭文忠公의 위패를 신설하며’이다. 정문충공은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를 말하는데, 당시 종성부에 정몽주의 위패가 신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며, 감회를 시문으로 읊었다. 전략 부분에서는 정몽주가 남송 주희의 성리학을 받아들

15) 〈府文廟新設鄭文忠公位版〉 일부(柳希春, 『眉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34집, 153쪽)

여 유학의 도를 몸소 실천했음을 말하였다. 인용한 부분은 정몽주가 문묘에 모셔진 상황부터 적었다. 내용에 따르면, 정몽주를 문묘에 모신 이유는 보통 사람들을 흥기시키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화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성은 북쪽 변방인지라 유학이 일어나지 않아 대낮에도 어두운 듯하였는데, 정몽주의 위패가 모셔지면서 유생들의 감동이 있었음을 전하였다. ‘光風霽月은 비록 전하기 어려우나, 秉彝好德은 사람들마다 갖추었네’는 유학의 전과 정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광풍제월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다. 송나라 黃庭堅이 〈濂溪詩序〉에서 친구 周敦頤의 인품을 기리기를, “용릉의 周茂叔은 인품이 너무도 고매해서, 흥중이 쇠락하기가 마치 맑은 바람이요 갠 달과 같다.[胸中灑落如光風霽月]”라고 말 한데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병이호덕은 본성을 지니고 아름다운 덕을 좋아함을 말하는데, 『시경』 대아 〈烝民〉의 ‘백성들 모두 하늘이 내려 준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게 되었도다.[民之秉彝 好是懿德]’라는 말에서 왔다. 즉, 유학이 전래되자 아직 광풍제월과 같은 인품을 지니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본성을 갖추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伊洛關閩은 모두 송대 도학가들과 관련된 지명이다. ‘이’는 伊川, ‘락’은 洛陽으로, 程頤·程顥가 강학한 곳이고, ‘관’은 關中으로 張載가 살던 곳이며, ‘민’은 주희가 강학하던 곳이다. 아울러 周濂溪의 ‘염계’는 송나라 유학자인 주돈이의 호이다. 그는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유학을 창시하여 흔히 신유학의 開祖라고 부른다. 이렇듯 마지막 부분에서 송나라의 신유학을 언급하며, 정몽주의 위패와 이러한 유학과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이처럼 시문에 따르면, 유희춘은 북변 종성에까지 유학이 전파된 것을 환영하였고, 선행을 한 사람을 드러내어 많은 이들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유배지인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속몽구』의 저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2장에서 이미 정리한 기록을 통해서 보면, 유희춘은 종성 유배 시절에 『속몽구』를 저술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책은 당나라 李瀚이 저술한 『몽구』를 잇는다는 의미로 지었으며, 전 4권이다. 『미암집』권3에 〈續蒙求題〉에 따르면, ‘이 한의 『蒙求』가 글이 잘 정돈되고 운은 조화롭게 되어 마치 구슬을 꿰어놓은 것 같아 아이들이 당연히 구해보아야 할 책이지만, 각주를 달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곧, 『몽구』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본으로 삼고자 했으나 각주가 없어 아쉬웠고,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은 책이 『속몽구』인 셈이다.¹⁶⁾ 유희춘은 『속몽구』를 저술하고서 〈속몽구제〉를 통해서도 저술 동기를 적고, 또한 시문 〈題續蒙求〉에서도 ‘삼천 갈래 물줄기 한 곳으로 이끌어, 넓고 깊은 만경창과를 보려하네. 장난 좋아하는 주인아, 참으로 우스우니, 먼저 반 이랑 연못에 연꽃을 심었으니.’¹⁷⁾라는 짧은 소회를 적었다. 내용이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따라서 유희춘이 『속몽구』를 저술한 목적도 현지인 교화와 연결되어 있다 하겠다.

3.3 문인 人士와의 교류와 소통

유희춘은 종성 유배기에 유무명 人士들과 시문으로 교류하며, 현지에 적응하는 한편, 외부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관련하여 어떤 배경에서 무슨 내용을 적었는가이다. 유희춘은 詩題를 통해 시문과 관련된 인물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원부사 이모’, ‘김·허’, ‘유·이’ 등과 같이 성만 언급한 경우, 둘째, ‘승공’, ‘府伯’과 같이 직함만 언급한 경우, 셋째, ‘李侯’, ‘柳侯’, ‘高上舍’ 등과 같이 성과 직함을 언급한 경우, 넷째, ‘許演’, ‘張景順’, ‘金惟善’, ‘조카 沿漑’, ‘大叔’, ‘金興祖’, ‘高伯雋’. ‘宋庭筍·庭篁’,

16) 유희춘의 『속몽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李演淳의 논문(「眉巖 柳希春의 『續蒙求』研究」, 『어문연구』3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을 참조할 것.

17) “三千支水導同歸, 擬看汪汪萬頃波. 主人好弄眞堪笑, 先作芙蓉半畝池.”(柳希春, 『眉巖集』 권1, 〈題續蒙求〉, 韓國文集叢刊 34집, 161쪽)

‘李景晦’, ‘진사 高君粹’, ‘仲沿公’, ‘景直’, ‘彦愼公’, ‘李廣文’, ‘尹元禮’, ‘陳國光’, ‘公擇’, ‘金鎬’, ‘張鳳靈’ 등과 같이 이름이나 자, 호를 언급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넷째만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뿐 나머지 경우들은 전혀 알 수 없거나 어렵잡아 알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크게 유배지와 유배지 밖 사람들로 나뉜다. 또한 유배지인은 일반적인 인사와 관직에 있는 사람, 제자 등으로 구분되며, 유배지 밖 사람들로서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유배 오기 전부터 교유했던 유무명의 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희춘은 유배지 사람들과 교유하며 유배의 아픔을 달랬으며, 한편 유배지 밖 사람들과는 書簡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으며 바깥세상과 소통하였다.

유배지 사람들 중에서 시체에 등장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이로는 ‘이후’(7회)와 ‘유후’(7회)인데, 이들은 직함을 보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작품 한 수씩을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雲滅秋晴爽氣寒
豆江淸興好盤桓
山迎赤幟增丹色
竿引銀刀供玉盤
胡沙恬靜偏明眼
水樂鏗鏘轉助歡
遙憶湖南香稻熟
酒邊爭擘蟹臍團 ¹⁸⁾ | 구름 걷힌 가을날 상쾌한 기운 차가워
두만강의 맑은 흥 거닐기 좋아라
산은 붉은 깃발 맞아 붉은 색 더하고
상앗대 은도를 낚아 옥소반에 올리네
오랑캐 사막 조용해 유난히 밝아 보이고
물소리 맑게 울려 더욱 기쁨을 돕는구나
멀리 추억하노니 호남 땅에 벼 익을 때면
술자리에서 둥근 게 배딱지 다투어 찢었지 |
| ② 三日關門魂獨居
今朝剝喙問何如
山陰未理王猷楫
北海還擎孔守書 ¹⁹⁾ | 사흘 동안 문 닫으니 영혼만 남아
오늘 아침 문 두드리며 문안하였네
산음의 왕휘지 노를 수리하지 못하여
북해의 공융은 다시 서신 떠받드네 |

18) 〈中秋陪柳侯遊江西〉(柳希春, 『眉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34집, 157쪽)

19) 〈次李侯春雪〉(柳希春, 『眉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34집, 163쪽)

작품 ①의 시체를 풀이하면, ‘중추절에 유후를 모시고 강서에서 노닐다’로 추석을 맞이하여 유후와 함께 놀이를 나가 지은 것으로 보인다. 수련에서는 맑게 갠 가을날 두만강가로 놀이를 나간 모습을 나타내었고, 함련에서는 붉은 깃발과 어울린 붉게 물든 단풍을 묘사하면서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소반 위에 올린 내용을 적었다. 경련에서는 밝은 주변의 승경과 함께 맑은 물소리를 말하여 청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중추절 벼가 익을 때 쫄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추억하는 모습을 형용하였다. ‘유후’와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시문이다.

작품 ②의 시체를 풀이하면, ‘이후의 〈춘설〉 시에 차운하다’이다. 이후가 〈춘설〉이라는 작품을 보내왔고, 유희춘이 이 시문의 운을 빌어 지은 것이다. 기·승구에서는 사흘 동안 외출하지 않으면서 집안에만 머문 작자에게 이후가 〈춘설〉 시를 보내준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전·결구에서는 이후의 시문을 받았으나 직접 가 뵙지 못하고, 대신 차운으로 서신을 대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山陰은 중국 紹興府에 속한 고을 이름으로 일찍이 쯤나라 王徽之가 이곳에서 살았다. 어느 날 홀로 술을 마시며 〈招隱詩〉를 읊다가 갑자기 剡溪에 있는 벗 戴逵가 보고 싶어지자 작은 배를 타고 밤새 그 집에 갔다가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까닭을 물으니 ‘흥이 나서 왔다가 흥이 다해 갈 뿐[乘興而來 興盡而反]’이라고 했다 한다. 또한 후한 말년에 北海 相을 지냈던 孔融은 선비들을 좋아하였고 특히 후진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었으므로 閑職에 물러난 뒤에도 빈객들이 날마다 집에 가득했다고 한다. 여기서 북해의 공융은 곧, 유희춘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한편, 유희춘은 유배지 밖 사람들과 서신을 주고받는 중에 외부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자신의 유배 생활 중 所懷를 알렸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寄侄沿漚〉와 〈遙謝宋庭筍庭篁〉·〈謝景直寄遠〉, 그리고 金麟厚와 주고받은 酬答詩가 있다.

유희춘은 이처럼 시를 통해 여러 문인인사와 교류 및 소통을 하며, 유배의 외로움을 달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유배오기 전 막역

하게 지냈던 김인후와의 소통이 필요했다. 김인후는 절의, 문장, 학문을 두루 갖춘 문인이며, 우리나라 18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김인후와 유희춘은 新齋 崔山斗에게서 동문수학한 인연을 시작으로 훗날 유희춘이 종성으로 유배가 있을 때 사돈을 맺기까지 하였다.²⁰⁾ 따라서 유희춘 입장에서는 외부 인사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김인후의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담아 유배간 10년 후에 〈與金厚之麟厚書〉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 다음은 편지의 일부분으로 유희춘의 당시 처지와 심정을 읽어낼 수 있다.

저는 모래바람 불고 흑한이 계속되는 땅에서 비록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연명하고 있으며, 어머니 나이는 76세로 서산에 지는 해와 같아 항상 끝없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근래에 누나와 조카가 서로 연이어 죽었음을 만 리에서 늦게나마 들으니 肝腸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번거롭지만 수심과 적막 속에서 그대의 주옥같은 우아한 문장을 완미하여 근심을 잊고자합니다. 장편 10여 수를 써서 보내주기를 고대합니다.²¹⁾

내용에 의하면, 유희춘의 처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고향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까지 들려오니, 심정이 편안할 리가 없었다. ‘간장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표현은 그러한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달래줄 것이 필요했는데, 바로 김인후의 시문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김인후는 유희춘의 위 편지를 받고서 소식을 담아 14수의 연작시를 지어 보냈고, 유희춘 또한 화답시로써 응대하였다. 다음은 두 사람이 酬答한 작품이다.

20) 이에 대한 내용은 許筠의 문집인 『惺所覆瓿稿』 권23의 〈惺翁識小錄〉에 나와 있다.

21) “僕風沙沍寒之地，縱延殘喘，母年七十有六，日簿西山，常懷無涯之懼。近來娣及只子相繼零落，萬里晚聞，肝腸摧裂。煩白愁寂之中，欲得君咳唾之珠，玩以忘憂，長篇十餘首，書送是冀。”(柳希春，『眉巖集』 권3，〈與金厚之麟厚書〉，韓國文集叢刊 34집，186~187쪽)

- | | |
|---|---|
| ① 有美眉巖子
胡然使我思
何當共一榻
開卷析毫釐 ²²⁾ | 아름다운 미암 친구여
어이해 그립게 만드는가
언제나 한 자리에 어울려
책 펴고 은미한 이치 분석할까요 |
| ② 塞北無人間
河西獨我思
新詩三百字
遙寄話毫釐 ²³⁾ | 북쪽 변방에는 인간 세상 없어
나는 하서만을 생각한다네
새로운 시 삼백 자는
멀리서 부쳐온 약간의 이야기였네 |

작품 ①과 ②는 김인후와 유희춘이 각각 지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점이 공통된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사람의 변함없는 우정을 알 수 있는 시문이다. 유희춘과 김인후의 관계는 유배지 내외 인사를 통틀어 가장 막역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는 당시 사림이라는 위치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실천성은 결국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구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했으며, 짧은 시문으로나마 지닌 소회를 나타냈다고 하겠다.

4. 시문의 성과와 남은 문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유희춘이 유배지 종성에서 지은 시문은 총 143수이다. 이 작품 수는 물론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미암집』 〈시장〉의 ‘바야흐로 생각을 깊게 하고 글을 지을 적에 입으로는 외

22) 〈和金河西麟厚韻 以相思一夜梅花發 忽到窓前疑是君爲韻〉(柳希春, 『眉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34집, 169쪽) 이 작품은 『河西集』 권5 〈奉和柳眉巖鍾山謫所〉 연작시 첫 번째 시문으로도 정리되어 있다.

23) 〈和金河西麟厚韻 以相思一夜梅花發 忽到窓前疑是君爲韻〉原韻(柳希春, 『眉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34집, 169~170쪽)

우고 손으로는 쓰면서 밤낮으로 계속 하였는데…….’라는 기록 내용을 통해 보자면, 더 많은 작품을 지었으나 逸失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는 해배 후 일상의 생활을 낱낱이 기록한 『미암일기』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유희춘은 유배가 풀린 후부터 죽기 직전까지 대소의 구분 없이 일기 형식을 빌려 소상히 기록하였는데, 이는 글을 남긴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유희춘이었기에 유배기에는 더욱더 많은 글을 남겼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충분치 못한 자료이지만, 유희춘이 종성에서 지은 시문은 19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의 행적을 더듬을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유희춘이 종성에서 남긴 시문은 그의 개인적인 감정을 실은 서정적인 작품도 있지만, 활동 영역을 알 수 있는 작품도 다수 있다. 더군다나 활동 영역을 알 수 있는 작품 속에서 또한 그의 생각까지 감지할 수 있어서 그 중요도를 倍加시켰다. 유배시의 본령은 단순한 서정적인 작품보다는 현지에서 무슨 활동을 통해 어떠한 행적을 남겼으며, 그러한 활동은 기록에는 어떻게 남아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때문에 유희춘의 유배지 시문에서 활동을 드러낸 작품이 중요하다.

유희춘의 종성 유배기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학문과 교육, 그리고 교유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앞의 두 가지는 후대의 기록에서 주로 언급한 것으로 유배지에서 행했던 유희춘의 주요 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유는 후대의 기록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지만, 시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러한 활동이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유배지는 낯설기 마련이다. 또한 그러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관련된 작품이나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희춘이 종성에서 남긴 시문 가운데 교유시를 그냥 넘길 수만은 없다. 따라서 3장에서 학문과 교육, 교유로 세분하여 주로 활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시문의 내용을 살폈다. 그 결과 유희춘은 학문적으로는 강한 존주의식을 드러내었고, 유배 현지인을 교육

이나 현창 사업을 통해 교화시키려 하였으며, 교유 인물이 유배 현지인과 외부 인사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희춘이 종성 유배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시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시문이 지닌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유희춘이 남긴 종성 유배기 시문은 각각이 한 편의 작품에 불과하여 떼어서 보면,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전체를 관망해 본다면 유배기를 정리해주는 이야기(story)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유희춘의 종성 유배기 시문을 보는 시각에서 남은 문제가 있다. 유희춘은 2장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7,8세 되던 해부터 『통감』을 읽으며 역사를 알아갔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관심은 유배기까지 이어지는데, 6편의 중국 역사를 소재로 한 시문을 남겨 이를 증명하였다. 구체적인 작품을 나열하면, 〈讀韓退之三上書詩〉, 〈瓜子金〉, 〈悼明妃〉, 〈長城懷古〉, 〈送四皓還商山〉, 〈韓亡子房奮〉 등이다. 이들 작품은 비록 중국 역사에서 택한 소재이기는 하지만, 유희춘의 역사의식과 이념을 알 수 있기에 그 중요도 측면에서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희춘이 종성에서 남긴 작품 중에는 당시 주변 정세와 현실 인식을 담은 경우도 있다. 총 6편정도 되는데, 〈倭奴嘆〉, 〈聞造山堡事〉, 〈卽事〉, 〈牛瘡嘆〉, 〈聞宗系改正將頒降〉, 〈聞賊胡敗〉 등이 그와 관련된다. 이들 가운데에서 특히, 〈왜노탄〉, 〈문조산보사〉, 〈즉사〉, 〈문적호패〉 등은 당시 위급했던 주변 정세를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은 또한 倭奴와 북쪽 오랑캐의 침입을 늘 감수해야했던 북변 지대의 사정을 실제 눈으로 확인한 상황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따라서 앞으로 유희춘의 종성 유배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때는 이러한 시문에 대한 관심도 보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 논고는 유희춘이 함경도 종성 유배 시절에 지은 시문에 나타난 활동 양상을 구명하고, 그 시문의 성과를 정리하였으며, 남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유희춘은 16세기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던 시기를 살다간 문인정치가로 을사사화의 여파로 일어난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그의 나이 36세부터 19년 동안 함경도 종성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이때의 생활 모습은 143수의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양상을 첫째, 학문을 연마하며 존주의식을 표출한 내용, 둘째, 현지인들에 대한 교화와 저술, 셋째, 못 인사와의 교류와 이를 통한 소통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학문을 연마하며 존주의식을 표출한 내용에서는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은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유희춘은 학문과 관련된 시문을 통해 남송 때의 학자인 주희를 존송하는 태도를 강하게 내비치는데, 구체적으로 〈곤학〉, 〈감흥〉 4수, 〈차광음〉, 〈구월십오야완월유감〉, 〈반무당〉, 〈사장경순견가회암시〉 등의 작품에서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현지인들에 대한 교화와 저술 활동을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희춘이 종성 유배 시절 현지인들은 배움의 의지를 보여 모여들었고, 유희춘은 유교적 현창 사업과 저술 활동을 통하여 현지인들을 교화시키려 했음을 몇몇 시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관련된 작품으로는 〈경술윤록월 십오야기사시삼생〉, 〈문인작시하여병유사이시〉, 〈부문묘신설정문충공 위판〉, 〈권부백포보범석〉 등이 있다. 또한 유희춘은 유배지 종성에서 『속몽구』를 저술하고서 〈제속몽구〉라는 시문도 남겼는데, 『속몽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셋째, 못 인사와의 교류와 이를 통한 소통을 끊임없이 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 〈중추배류후유강서〉, 〈차리후춘설〉,

〈기질연개〉, 〈요사송정순정황〉, 〈사경직기원〉, 그리고 김인후와 주고받은 수답시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김인후와 주고받은 수답시가 인상적인데, 총 16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희춘과 김인후는 당시 사림이라는 위치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러한 공통된 실천성은 결국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구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했으며, 짧은 시문으로나마 지닌 소회를 나타냈다고 보았다.

유희춘의 종성 유배기 시문은 각각이 한 편의 작품에 불과하여 떼어서 보면,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전체를 관망해 본다면 유배기를 정리해주는 이야기(story)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유희춘이 유배지에서 남긴 중국 역사 시문과 현실 인식을 담은 시문에 대한 관심은 남은 과제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國朝寶鑑』

『勉菴集』

『眉巖集』

『涪溪記聞』

『惺所覆瓿稿』

『詩經』

『五洲衍文長箋散稿』

『朱子大典』

『鶴峯逸稿』

김종성, 「미암 유희춘의 한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송재용, 「미암 유희춘의 시세계 -한시와 시조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30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제이앤씨, 2008.

李演淳, 「미암 유희춘의 유배기 문학 연구」, 『동양고전연구』제32집, 동
양고전학회, 2008.

_____, 「眉巖 柳希春의 『續蒙求』研究」, 『어문연구』제38집,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10.

황수정, 「미암 유희춘 문학 연구」, 『한국한시연구』제14집, 한국한시학
회, 2006.

투고일 : 2012년 1월 4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The Aspects of Activities Presented in Poetry by Miam Yu Hui-Chun During Exile at Jong Sung

Park, Myoung-hui

This study analysed aspects of activities presented in poetry by Yu, Hui-Chun during exile at Jong Sung and organized the results of the poetry and tasks left.

Yu, Hui-Chun wrote a total of 143 poetic works while he was in exile at Jong Sung. First, The poetry was categorized into that with respect to Zhu Xi, that on education for local people and that of friendship with neighbors.

First, the study focused on his firm attitude of learning though he was in exile. In particular, he revealed strong attitude of respect to Zhu Xi, a scholar of Song Dynasy through his poetry on studie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he led education and writing activities for local people. It was discovered in a few poems that the people gathered to learn from him when he was in exile at Jong Sung and he attempted to educate them through confucian projects and writing.

Third, he continued to communicate with famous figures. He exchanged a total of 16 poems with Kim In-Hu, which was very impressive. Yu, Hui-Chun and Kim, In-Hu had common things each other in that they attempted to practice what they learned as Salim and they felt closer each other through their practical mind although they were far away. They showed their feeling through short poems.

Though Yu, Hui-Chun's poetry at exile did not have significant meaning when it was separated individually, it has a great meaning as it tells about his exile as a whole. Then, poetry on Chinese history by Yu, Hui-Chun and interest in recognition of reality will be further studied.

Key words : Miam Yu Hui-Chun, Jong Sung, Zhu Xi, attitude of respect to Zhu Xi, Kim In-Hu